

광주FC “K리그2 조기 우승 가자”

30라운드 홈경기 헤이스 결승골
2위 대전에 1-0 승 승점 14점 차

광주FC가 거침없는 1위 질주를 이어갔다. 광주가 지난 3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2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2위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1-0 승리를 거뒀다. 전반 43분 기록된 헤이스의 골을 지킨 광주는 두 경기를 덜 치른 대전을 14점 차로 밀어냈다. 광주는 이날 승리로 2연승 포함 리그 6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17승 7무 3패(승점 58)를 기록, 조기 우승을 위한 걸음을 재촉했다. 전반 6분 산드로가 중원에서 길게 공을 보냈다. 페널티박스 바로 앞에 있던 헤이스에게 공이 향했지만 쉽게 발보다 공이 빨랐다. 전반 10분에는 헤이스가 코너킥 상황에서 키키로 나섰고, 산드로를 향해 공을 띄웠다. 산드로의 헤더가 이어졌지만 힘이 실리지 않은 공이 대전 골키퍼 정산에 막혔다. 바로 이어 엄지성도 공세에 나섰다. 왼쪽에서 정호연의 패스를 받은 엄지성이 상대를 따돌리고 페널티 아크 부근으로 진입해서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매섭게 날아간 공은 아쉽게 골키퍼의 호수비에 막혔다.

이후 이순민과 이민기도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면서 상대를 압박했다. 그리고 전반 43분 광주가 마침내 결실을 봤다.

이상기가 오른쪽에서 상대 마크를 뚫고 길게 크로스를 올렸고, 산드로가 헤딩으로 공을 떨쳤다. 이어 헤이스가 오른쪽으로 눈스톱 슈팅을 날리면서 대전의 골망을 흔들었다.

헤이스의 시즌 9호포와 함께 K리그 데뷔 6경기 만에 산드로의 공격 포인트가 기록됐다.

산드로는 후반 21분에는 프리킥 상황에서 골대를 살짝 벗어나는 매서운 슈팅도 선보였다.

후반 30분 이정호 감독은 교체카드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이민기와 헤이스를 빼고 두현석과 하승운을 투입하면서 추가골 사냥에 나섰다. 하지만 쉽게 결과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후반 43분에는 ‘루키’ 정호연이 오른쪽으로 개인 2호골에 도전했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후반 44분 광주가 승리로 가는 길에 마지막 위기를 맞았다.

대전 조유민이 페널티박스 지역에서 찔러준 공을 공민현이 크로스로 연결했다. 이어 문전에 있던 카이저가 머리로 광주 골대를 겨냥했지만, 김경민이 골대로 빨려 들어간 공을 오른쪽으로 쳐내면서 팀의 승리를 지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헤이스(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3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의 K리그2 30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43분 골을 넣은 뒤 산드로와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최근 1년 골프선수 수입 미켈슨, 1803억 원 1위

LIV 소속 선수들 1~4위 차지



필 미켈슨

필 미켈슨(52·미국)이 최근 1년 사이에 골프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31일 발표한 최근 1년 사이 골프 선수들의 수입 순위 따르면 미켈슨이 총액 1억3800만 달러(약 1803억원)로 1위를 차지했다.

미켈슨은 코스 내 수입 1억200만 달러, 코스 외 수입 3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통계는 지난해 7월 초부터 1년간 골프 선수들의 수입을 집계한 것으로 코스 내 수입은 대회 출전으로 인한 상금, 계약금 등을 더한 액수다. 코스 외 수입은 후원 계약이나 초청료, 기념품이나 라이선스 사업 수입 등이 포함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로 이적하며 받은 돈은 코스 내 수입으로 분류됐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선수 영향력 지표에 따라 지급한 보너스는 코스 외 수입에 넣었다.

미켈슨은 올해 5월 포브스가 발표한 최근 1년간 전 종목 운동선수 수입 순위에서는 31위에 그쳤다. 당시 미켈슨의 최근 1년간 수입은 4530만 달러로 집계됐다. 불과 2개월 사이에 연간 수입이 9270만 달러나 늘어난 것은 6월 출범한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로 이적하며 받은 계약금 덕분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골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수입 순위에서는 LIV 소속 선수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더스틴 존슨이 9700만 달러로 2위, 브라이언 디샴보가 8600만 달러로 3위였고 브룩스 켈카(이상 미국)가 6900만 달러로 4위다.

LIV로 넘어가지 않은 선수 중에서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1800만 달러로 5위에 올랐다. 역시 PGA 투어에 남은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4300만 달러로 6위, 7위는 LIV 소속인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의 4200만 달러다.

PGA 투어에서 뛰는 조던 스피스(미국)가 3900만 달러로 8위고, 9~10위는 LIV 소속 패트릭 리드(미국·3700만 달러)와 샬 슈워츠(남아공·3400만 달러)이다. 10위 내 7명이 LIV 소속 선수들로 채워졌다. /연합뉴스

KIA, 선발 안정되니 불펜 ‘비상’

장현식 팔꿈치 통증 엔트리 말소
전상현도 팔꿈치 부상 정밀 검사
김도현·유승철 1군으로 콜업



KIA 타이거즈의 불펜에 ‘비상 비상’이 걸렸다. 전반기에 외국인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고전했던 KIA는 새 외국인 투수 토마니 파노스의 KBO리그 연착륙 속 선놀린의 부상 복귀로 기본 중계 후반기 스타트를 끊었다.

전반기에 선발로 역할을 했던 한승혁을 불펜으로 돌리는 등 마침내 안정적인 마운드로 순위 싸움에 속도를 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KIA의 마운드 ‘엇박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선발진이 안정세에 접어들자 이번에는 불펜에 문제가 생겼다.

KIA는 7월 29일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장현식을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장현식은 지난 시즌 34개의 홀드를 수확하면서 9위 팀 KIA 유일의 ‘타이틀 홀더’가 됐다.

69경기에 나와 76.2이닝을 소화했던 장현식은 올 시즌에는 41경기에 출전해 39.1이닝을 던졌다.

앞서 전반기에도 한 차례 팔꿈치 상태가 좋지 않아 휴식을 취하기도 했던 장현식은 다시 자리를 비우게 됐다.

7월 31일에도 엔트리에 변동이 있었다. 이번에는 전남 SSG와의 경기에서 자진 강판했던 전상현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상현도 팔꿈치에 이상이 생겼다. 김중국 감독은 지난 31일 경기에 앞서 “팔꿈치에 피로가 쌓인 것 같다”고 한다. 내일 서울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고 전상현의 말소 소식을 전했다.

전상현은 30일 경기 전까지 7월 6경기에 나와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4홀드 1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불펜에서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었다.

올 시즌 전체 성적으로 봐도 43경기에서 41이닝을 소화하면서 2.41의 평균자책점으로 5승 4패 2세이브 16홀드를 기록, 불펜의 핵심 역할을 했었다.

팀의 필승조가 나란히 이탈하면서 KIA의 뒷심 싸움에 비상이 걸렸다.

일단 KIA는 장현식과 전상현을 대신해 각각 김도현과 유승철을 콜업했다.

지난 4월 트레이드를 통해 한화에서 이적한 김도현은 29일 SSG전에서 2이닝 3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출발을 했다.

5월 27일 SSG전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던 유승철도 불펜의 줄부상으로 다시 ‘직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팀 입장에서 유승철



장현식



전상현

이 전반기에 보여줬던 힘이 절실하다.

김중국 감독은 “기존 선수들이 (부상 공백을) 메워줘야 한다. 상황에 따라 투수를 운용할 것이다”며 “박준표도 경험이 있다. 최대한 있는 선수들이

7-8회 잘 막아줘야 할 것 같다. 선발 투수들이 이닝을 조금 더 길게 끌어줘야 할 것 같고 서로 도와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투수들 가운데 부상자가 나오면서 조금 더

힘든 기간이 있을 것 같다. 소크라테스가 돌아오는데 투수들이 빠져서 부상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민헨, 독일 슈퍼컵 3년 연속 우승컵

바이에른 민헨이 독일 슈퍼컵 3연패와 함께 통산 10번째 우승 금자탑을 쌓았다.

민헨은 지난 31일 독일 라이프치히의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2022 독일축구리그(DFL) 슈퍼컵 라이프치히와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5-3으로 이겼다.

이로써 민헨은 이 대회 3년 연속 우승과 함께 사상 최초의 10회 우승 대기록을 달성했다.

독일 슈퍼컵은 이전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팀과 독일축구협회컵(DFB 포칼) 우승팀이 단판으로 대결하는 대회다.

민헨이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팀, 라이프치히는 DFB 포칼 우승팀이다.

민헨은 전반에만 세 골을 터트리면서 일찌감치 우승을 예감했다.

전반 13분 자발 무시알라의 오른쪽 슈팅으로 1-0을 만든 민헨은 전반 31분 사디오 마네의 왼발 슈팅으로 2-0으로 앞서갔다.

지난 시즌까지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뛰다가 6월 민헨으로 옮긴 마네는 아프리카 올해의 선수에도 선정되는 등 최근 경사가 겹쳤다.

전반 45분 뱅자맹 파파르가 한 골을 더 보태 3-0으로 달아난 민헨은 4-1로 앞서다가 후반 32분과 44분에 연달아 실점하며 4-3으로 쫓겼다. 그러나 후반 추가 시간에 리로이 제네가 췌기 골을 터뜨려 승리를 지켜냈다.

민헨은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가 지난 시즌이 끝난 뒤 FC 바르셀로나(스페인)로 이적했지만 새로 영입한 마네 등의 활약 덕에 화려한 공격력을 발휘했다.

최근 10년 연속 분데스리가 왕좌를 지키고 있는 민헨은 2016년~2018년에 이어 다시 독일 슈퍼컵 3연패를 이뤘다.

민헨이 11연패에 도전하는 분데스리가 2022-2023시즌은 8월 5일 개막한다. /연합뉴스